

# “소상공인, 장사 잘 되게 도와드립니다”

전북도내 8개 기관 전문가 10명 '민생현장 솔루션 팀' 운영  
자금지원·경영·법률상담 등 전문가들 직접 찾아가 고충 해결

전북도가 소상공인을 위해 '민생현장 솔루션 팀'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자금지원, 경영, 법률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받을 기회가 부족한 전통시장과 골목 상가 등의 소규모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상담위원들이 현장으로 찾아가 각종 고충을 해결해주는 것이다. 전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본부,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도 서민금융복지센터 등 8개 기관이 힘을 모았다. 매월 두 차례 세무, 컨설팅 등 5개 분야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한다.

또 10명 이상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수시로 원하는 시간, 장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 임대차계약, 세무, 고용·노동, 지적 재산권, 홍보마케팅, 상품개발, 디자인, 시설행태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설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대일 밀착 지원서비스를 한다. 도는 지난 6일 고창군을 시작으로 4개 시·군에서 연달아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상담이나 신청은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063-280-3258)과 전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063-717-1304)로 문의하면 된다. 유근주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전



지난 6일 전북도 민생현장 솔루션팀이 고창전통시장 내 공동판매장을 찾아 상인들을 상대로 무료상담을 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현대화되고 특성화되면서 임대료 상승을 비롯한 각종 법률 및 세무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만 상인들의 여건상 전문상담으로 이어

지기가 힘든 면이 있다”며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그동안 겪고 있던 고충을 해결하고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조선왕실 문헌의 정수를 만나다

전북대박물관 특별전 개막...인조대왕실록 등 전시

조선 왕실 문헌의 정수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전 '조선의 국왕과 왕실 분향 전주'가 전북대박물관에서 개막했다. 오는 19일까지 이어지는 특별전에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보인소의궤(보물 제1901-2호)와 경모궁의궤(보물1901-2호·사진), 정조어제어필, 인조대왕실록, 선원록 등 사료적 가치와 예술성이 뛰어난 유물들을 감상할 수 있다. 보인소의궤는 국새 제작과정이 담긴 거의 유일한 기록물이며 경모궁의궤는 사도세자의 사당인 경모궁에서 치르는 각종 제사 의식 절차를 정리한 책이다.



김성규 전북대 박물관장은 “전라도 정도 천년에 조선왕조 발상지 전주에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조선왕실 문헌의 정수를 만나고 왕실 분향으로서 전주의 위상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익산시 문화누리카드 활성화 '찾아가는 문화장터' 운영

겨울 불편한 노인·장애인 대상 스카프·침구류·양말 등 판매

익산시는 문화누리카드 이용도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장터'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장터는 오는 8일 모현동 배산휴먼시아 5단지에서 운영된다. 장터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인·장애인 등 거동이 어려운 발급자 거주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문화누리카드도 구매 가능한 문

화상품을 판매하는 행사다. 장터에서는 익산지역 업체와 공예작가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과 천연염색 스카프, 침구류, 양말, 집화 등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판매 당일 2만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7000원 상당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한편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공연 관람과 여행, 스포츠 관람 등 문화를 향유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익산=유정영 기자 yiy@



남원 서도역의 가을풍경. 대하소설 '혼불' 배경지인 남원시 사매면 서도역의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서도역은 '혼불'의 주인공인 효원과 강모 등이 자주 이용하던, 작품의 중요한 문학적 공간이다. 역사와 관사 등의 건물, 철길, 신호기 등이 소설의 배경인 1930년대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돼 영화촬영장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남원시 제공>

## 군산시, 30년 이상된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관리' 한다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  
조촌동 등 26개 단지 1권역 설정  
군산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내 최초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관리사무소'를 시범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군산시에 따르면 현재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100가구 미만)은 94개 단지 5082가구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권역별로 나눠 통합관리사무소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사무소는 노후시설물의 관리와 각종 관리비 운영 체계화,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실시해 독거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 시

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나선다. 1단계 시범사업은 조촌·경암동 일대 소규모 공동주택이 밀집된 26개 단지(663가구)를 1권역으로 설정하고, 적정 장소에 관리사무소를 두기로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사전에 철저한 검증을 시행하고 문제점 도출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민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리사무소의 관리비의 체계적인 수납 및 지출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노후화된 시설물의 전문적인 관리와 보수를 통해 입주민들이 안전한 주거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군산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참여형 자생조직 구축과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한 후 대상 지역을 군산시 전역으로 확대해 실시할 방침이다. /군산=박근석 기자 nogusu@

## 한국 최고 어린이 명창 가린다

11~12일 고창 동리국악당서 '어린이판소리 왕중왕대회'

우리나라 최고의 어린이 명창을 가리는 '제31회 전국어린이판소리 왕중왕대회'가 11~12일에 고창군 동리국악당에서 열린다. 대회는 판소리 꿈나무를 발굴하고 조선 후기 판소리 여섯 마당을 집대성한 고창 출신 신재효(1812~1884) 선생의 유업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과 올해에 각종 국악대회에서 입

상한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희망자는 9일까지 고창 문화의전당(063-560-8041)에 신청하면 된다. 11일 예선을 거쳐 12일 본선을 치른다. 고창군과 KBS 전주방송총국이 공동 주최하고 동리문화사업회가 주관한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 정읍시재향군인회 '국가발전 공로' 대통령 단체 표창

정읍시재향군인회가 제66주년 재향군인의 날에 호국의식고취를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 단체 표창을 수상했다. 정읍시재향군인회는 1952년 4월 5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정읍군연합분회로 발족해 1995년 1월 23일 행정명령에 의거 정읍군회와 정주시회가 통·폐합됐다.

현재 회원 2만2000명이 가입돼 친목 도모와 국가발전, 사회공헌 증진에 힘쓰고 있다. 특히 국가안보정책 지원을 비롯한 현안 안보대응활동과 지역시민 안보교육, 안보현장 견학, 6·25전쟁 기념행사 주관 및 불우 6·25참전용사 생계보조비 지원을 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공유지분, 300평(6000만원)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20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

